

## 모유수유에 대한 여대생의 지식 및 태도\*

김 성 희\*\* · 최 의 순\*\*\*

### I. 머리말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것은, 아기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선물인 동시에, 산모에게는 아기 양육방식에 대한 최초의 선택으로서, 자연의 순리이며, 모아 모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Toni, 1990).

모유는 아기의 성장발육에 가장 적절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기나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시 아기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산모에게는 아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모아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이은숙, 1987),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궁수축을 돕고, 자궁암이나 유방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 발생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대한 간호협회, 1996).

이와 같은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서구사회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및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그 동안 감소되었던 모유 수유율을 꾸준히 증가시켜, 현재는 90%이상의 모유 수유율을 보이고 있다(WHO, 199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를

꾸준히 권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94%이었던 모유 수유율이 80년대는 68.6%(한국인구 보건 연구원, 1982), 90년대에는 28.8%(한국인구 보건 연구원, 1992)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모유수유율 감소는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 모델의 부재, 조제유 보급, 병원의 모아 분리 운영체계, 지식부족 및 의료인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에 있다고 하겠다(이미자, 1995).

또한 모유수유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으로부터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모유수유를 계획한 산모들도 도움을 받을 곳이 별로 없어서(조미영, 1992),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변수자 등, 1994),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중단하고 인공수유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김효진과 박영숙, 1993).

모유수유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본능적인 것이 아니므로(Huggins, 1990), 구체적인 배움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모의 적극적인 의지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임

\*\* 가톨릭대학병원 분만실 수간호사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지금까지 모유수유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는 모유수유에 관한 의료인과 임산부들의 지식과 태도(김혜숙, 1995; 변수자 등, 1994; 정문숙 등, 1994), 모유수유 실태(가족계획 연구원, 1997; 한국 인구 보건연구원, 1982, 1992), 모유수유 실패요인(김희숙, 1991; 오현이 등, 1994; 전양자, 1993)등 주로 임산부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었으며, 모유수유를 감소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들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산전, 산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미종, 1996; 남은숙, 1995; 박옥희, 1991; 신재순, 1996; 이은숙과 서영숙, 1996). 그러나, 미혼 여성이나 임신전 여성 특히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나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1996)는 모유수유 동기와 모유수유를 결정하는 시기는 산모 본인에 의해 그리고 임신전에 대부분 결정하므로 임신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확대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래 어머니가 될 여대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나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 II. 대상 및 방법

###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여대생으로서 임의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462명이었다.

### 2. 방법

####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서 일반적 특성 15문항, 모유수유지식 측정 33문항, 모유수유 태도 측정 20문항 등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모유수유 지식 측정 도구

대상자의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국내 모유수유 지식에 관한 연구문헌(김혜숙, 1995; 이은주, 1997)에서 사용한 지식측정도구들과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1981)과, 유니세프에서 의료요원들을 위하여 제작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 지침서」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대생들에게 맞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한 후, 모성 간호학 전공교수 2명, 국제 모유수유 전문 간호사 1명, 산과 병동 수간호사 2명, 신생아실 수간호사 1명, 산과 병동 간호사, 간호대생 2명으로 하여금 내용을 검토하게 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애매 모호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내용등을 삭제하거나 재수정 보완하였다.

본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모유의 장점 13문항, 모유수유 방법 및 수유시 유의 사항 10문항, 모유수유 관련 해부 생리 7문항, 모유수유 평가기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답하게 하여 '오답' '모르겠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Chronbach's  $\alpha$  값 .745(n=462)이다.

#### (2) 모유수유 태도 측정도구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금희(1997)가 초산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인지적: 6문항, 정서적: 7문항, 행동적 측면 :7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의 자가평가도구이며, 긍정적 문항 11개와 부정적 문항 9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정금희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값 .7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값 .874( n=462 )로 나타났다.

#### 2)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간호대생 2명과 본 연구자가 직접 서울, 경기지역 4년제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였으며, 배부한 설문지 500부중 회수된 설문지는 467로, 회수율 93.4%였다.

회수된 질문지중 질문에 충실히 응답한 462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태도는 unpaired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성 적

1.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17세부터 29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0.93±2.08세이고, 20-23세가 60.7%로 가장 많았다. 인문계(66.7%)가 자연계(33.3%)보다 많았으며, 1학년이 157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 121명(26.2%), 3학년 112명(24.2%), 2학년 72명(15.6%) 순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6.9%로 그중 기독교가 34.9%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가 20.6%, 불교 10.8%이며, 기타 0.6%순이었다.

성장기의 수유형태를 보면 모유수유 50.6%, 혼합수유 30.5%, 인공수유 15.4%순이었고, 성장기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1.7%로 대가족 17.2%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16.2%가 흡연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 흡연중인 경우는 5.2%이었다<표 1>.

2) 모유 수유관련 특성

대상자의 79.7%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정보제공을받았던 매체에 대하여 중복 응답하게 한 결과, 대중매체가 216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163명(35.4%) 가족 105명(22.8%) 교우 20명(4.3%)라고 응답한 반면 의료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8명(3.9%)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모유수유에 관한 바람직한 정보제공자는 의료인 242명(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118명(26.1%), 대중매체 46명(10.2%), 양호교사 35명(7.7%), 기타 11명(2.4%) 순이었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모유수유에 관한 적당한 교육시기로는 고등학교 재학중이 183명(40.0%)으로 가장 많았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62)

특 성	n (%)	
연령	20세 미만	137 (29.7)
	20-23세	280 (60.7)
	24세 이상	44 ( 9.5)
계열	인문계	308 (66.7)
	자연계	154 (33.3)
학년	1학년	157 (34.0)
	2학년	72 (15.6)
	3학년	112 (24.2)
	4학년	121 (26.2)
종교	기독교	161 (34.9)
	천주교	95 (20.6)
	불교	50 (10.8)
	무교	153 (33.1)
	기타	3 ( 0.6)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234 (50.6)
	인공수유	71 (15.4)
	혼합수유	141 (30.5)
	모른다	16 ( 3.5)
성장기 가족구조 *	핵가족	376 (81.7)
	대가족	79 (17.2)
	모른다	5 ( 1.1)
흡연경험	없다	387 (83.8)
	있다	51 (11.0)
	현재 흡연중	24 ( 5.2)

\* 무응답제외

으며, 중등학교 재학중 94명(20.5%), 대학교 재학중 67명(14.6%)으로, 응답자의 75.1%가 중등학교 이상의 재학중에 교육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래 모유수유 실천의지에 대하여 '모유를 안 먹이겠다' 30명(6.5%), '일을 나갈 때는 분유, 집에서는 모유수유를 하겠다' 334명(72.5%), '가능한 일을 나가서라도 모유수유를 하겠다' 56명(12.1%)으로 84.6%에서 모유수유 실천의지를 보였다. 모유수유를 선택하는 이유는 '영양이나 면역학적 우수성 때문에' 244명(54.7%), '엄마와 아기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132명(29.6%), '자연스러운 것이며, 엄마로서의 의무이므로' 61명(13.7%),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6명(1.3%)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성 취업 증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예 : 육아휴직, 재취업 보장)' 167명(36.5%),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140명(30.6%), '아기 엄마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의지 부족' 83명(18.2%), '분유에 대한 과대선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 49명(10.7%), '핵가족화로 인한 모유수유 역할 모

델의 부재"가 12명의(2.6%)순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모유수유관련특성 (N=462)

특 성	n (%)
정보습득 여부	받았음 368 (79.7) 받은 적 없음 94 (20.3)
정보습득처**	대중매체 216 (47.0) 교사 163 (35.4) 교우 20 ( 4.3) 가족 105 (22.8) 의료인 18 ( 3.9) 기타 14 ( 3.0)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 *	의료인 242 (53.5) 부모 118 (26.1) 양호교사 35 ( 7.7) 대중매체 46 (10.2) 기타 11 ( 2.4)
적당한 모유수유 교육시기*	초등학교 20 ( 4.4) 중등학교 94 (20.5) 고등학교 183 (40.0) 대학교 67 (14.6) 결혼전 42 ( 9.2) 결혼후 13 ( 2.8) 출산전 39 ( 8.5)
모유수유 실천의지*	1.모유를 안먹일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30 ( 6.5) 2.일을 나갈 때는 분유, 집에서는 모유수유하겠다.. 334 (72.5) 3.가능한 일을 나가서도 모유를 먹이겠다. 56 (12.1) 4. 잘 모르겠다. 41 ( 8.9)
모유수유 선택이유*	1.영양이나 면역학적인 우수성 때문에 244 (54.7) 2.엄마와 아기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132 (29.6) 3.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6 ( 1.3) 4.자연스러운 것이며, 엄마로서의 의무이므로 61 (13.7) 5.기타 3 ( 0.7)
모유수유율이 낮은이유*	1.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 140 (30.6) 2.엄마의 실천의지 부족 83 (18.2) 3.분유에 대한 과대선전 49 (10.7) 4.여성 취업의 증가 167 (36.5) 5.핵가족화 12 ( 2.6) 6.기타 6 ( 1.3)

\* 무응답 제외

\*\* 중복응답

##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 1) 지식정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33점 만점중 평균 16.46±4.59이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모유의 장점,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관련 해부, 생리 및 모유수유의 평가,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에 대한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모유수유의 평가 요인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음을 알수 있었다(표 3).

〈표 3〉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N=462)

영역별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모유수유의 장점	13	9.48 ± 2.50
모유수유 방법	10	2.94 ± 1.67
수유의 해부, 생리	7	3.28 ± 1.33
수유의 평가	3	.71 ± .89
Total	33	16.40 ± 4.59

### 2) 문항별 정답과 오답 순위

각 문항별 정답률은 '모유수유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96.8%)가 가장 높았으며, '면역성분이 있다'(91.1%), '감기에 덜 걸린다'(90.3%), '아기의 두뇌 발달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있다'(87.9%), '엄마의 스트레스와 젖의 양은 상관없이 없다'(80.7%), '모유를 먹이는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모유로 전달된다'(76.8%), '모유를 먹인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낮다'(76.8%)의 순이었다.

반면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엄마가 항생제 복용중인 경우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99.4%), '아기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 좋다'(89.0%), '10대 엄마가 모유수유시 본인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88.1%), '아기에게 물이나 분유등 보충. 식이를 주면 엄마의 젖분비 촉진을 방해한다'(87.7%), '아기가 하루에 6-8개의 기저귀를 갈게 되면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있다는 증거이다'(82.5%)의 순이었다(표 4).

### 3) 대상자의 특성별 모유수유 지식정도

대상자의 특성별 모유수유 지식정도는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열에서 ( $t = -3.213, p < .001$ ). 학년이 높아질 수록 ( $F = 7.275, p < .001$ ), 성장시 인공영양군보다 모유 영양군에서 ( $F = 3.671, p = .012$ ). 모유수유에 대한 정

〈표 4〉 모유수유에 대한 문항별 지식정도

(N=462)

문항	정답 n(%)
1. 모유 먹는 아기는 분유 먹는 아기에 비해 감기에 덜 걸린다.	417 (90.3)
2. 모유 속에는 아기의 두뇌발달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있다	406 (87.9)
3. 출산 후 처음 나오는 모유에는 장내 세균감염을 예방해 주는 면역성분이 있다.	421 (91.1)
4. 모유 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 같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332 (72.0)
5. 모유 먹는 아기는 분유 먹는 아기보다 비타민이 부족하고 빈혈증상이 있다.	322 (69.7)
6. 모유 먹는 아기는 분유 먹는 아기에 비해 턱과 치아가 튼튼하지 않다.	344 (74.6)
7. 모유는 분유에 비해 소화가 잘 된다.	352 (76.2)
8. 모유수유는 아기의 비만을 예방한다.	244 (52.8)
9. 모유수유는 아기에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447 (96.8)
10. 모유를 먹이면 산모의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	261 (56.5)
11. 모유를 먹인 여성은 유방암 발생율이 낮다.	355 (76.8)
12. 모유수유는 자연피임에 효과가 있다.	161 (34.8)
13. 모유수유는 산후회복을 촉진시킨다.	316 (68.4)
14. 엄마가 항생제를 복용중인 경우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3 (0.6)
15. 모유를 먹이기 전이나 후에 젖꼭지를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233 (50.5)
16. 젖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젖먹이기 전에 국, 찌스, 물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228 (49.4)
17. 아기 엄마의 휴식을 위해 하루에 1회는 아기 아빠가 분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150 (32.5)
18. 아기에게 모유수유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 좋다.	51 (11.0)
19. 모유수유는 아기가 스스로 유방에서 입을 떼 때까지 먹인다.	108 (23.4)
20. 모유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직후부터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야한다.	228 (49.6)
21. 아기에게 물이나 분유 등 보충 식이를 주면 엄마의 젖 분비 촉진을 방해한다.	57 (12.3)
22. 모유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먹일 수도 있다.	181 (39.2)
23. 모유 저장 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모유를 짜낼 때마다 다른 용기에 저장한다.	118 (25.6)
24. 유방이 작으면 젖 분비량도 적다.	292 (63.3)
25. 엄마의 스트레스와 젖의 양은 상관없다.	372 (80.7)
26. 10대 엄마가 모유수유를 할 경우 본인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5 (11.9)
27. 모유를 먹이는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모유로 전달된다.	355 (76.8)
28. 유방 성형수술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129 (27.9)
29. 모유수유를 하면 유방이 처진다.	117 (25.4)
30. 모유수유 초기에는 수유 후 유방을 비워주어야 모유분비가 촉진된다.	196 (42.5)
31. 아기가 하루에 6-8개의 기저귀를 갈게 되면 모유를 충분히 먹고있다는 증거이다.	81 (17.5)
32. 모유를 먹고 있는 아기가 묽고 황색을 띤 쉼쌀같은 대변을 보는 것은 정상이다.	113 (24.5)
33. 모유만 먹는 아기에게는 변비가 없다.	133 (28.8)

보를 받지 않은 군보다는 받은 군에서( $t=4.569, p < .001$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모유수유실천의지에서 직장을 가져도 모유를 먹이겠다고 답한 군에서 지식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직장을 나갈때는 분유, 집에서는 모유를 먹이겠다', '모유를 안먹이겠다'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839, p < .001$ )(표 5).

그러나 연령별, 종교별, 성장기 가족 구조별, 흡연경험별 지식정도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 1) 태도정도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80점 만점중 총평균 점수는  $60.50 \pm 7.59$ , 평균 평점은  $3.04 \pm 3.36$ 으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영역별로는 실천적 측면의 평균평점( $3.51 \pm .44$ )이 가장 높았고, 인지적 측면( $3.33 \pm .36$ ), 감정적 측면( $2.78 \pm .43$ )순이었다(표 6).

문항별 평균점수는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한다'( $3.84 \pm .44$ )가 가장 높았으며,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3.69 \pm .51$ ), '모유를 먹는 아기가 더 건강하다'( $3.47 \pm .58$ ), '모유를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수유방법이다'( $3.46 \pm .56$ ), '내가 할 수 있다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3.42 \pm .63$ ),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분유보다도 아기에게 나쁠지도 모른다'( $3.31 \pm .65$ )순으로 긍정적 태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N=462)

특 성	Mean±SD	t / F	p	Tukey	
연령	20세 미만	15.96±4.41	1.132	.323	
	20-23세	16.49±4.60			
	24세 이상	17.05±4.92			
계열	인문계	15.92±4.44	-3.213	.001	
	자연계	17.36±4.75			
학년	1학년	15.70±4.32	7.275	.001	a
	2학년	15.03±4.70			b c
	3학년	16.87±4.02			b
	4학년	17.70±5.00			a c
종교	기독교	16.56±4.63	.296	.881	
	천주교	16.21±4.69			
	불교	16.78±4.74			
	무교	16.21±4.45			
	기타	17.67±6.35			
수유형태	모유수유	16.83±4.56	3.671	.012	a
	인공수유	15.01±4.66			a
	혼합수유	16.57±4.43			
	모른다	14.75±5.01			
가족형태	핵가족	16.37±4.58	.770	.464	
	대가족	16.72±4.70			
	모른다	14.20±4.76			
흡연	경험이 없다	16.36±4.64	.204	.815	
	경험이 있다	16.78±4.03			
	현재 흡연중	16.25±4.99			
정보여부	받았음	16.89±4.49	4.569	.001	
	받은 적 없음	14.50±4.51			
실천의지	1. 모유를 안먹이겠다	13.60±5.30	9.839	.001	a b
	2. 일을 나갈 때는 분유, 집에서는 모유를 먹이겠다.	16.68±4.49			a c
	3. 일을 나가서도 모유먹이겠다.	18.00±4.15			b d
	4. 잘 모르겠다.	14.32±3.62			c d

도를 보였다. 한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아기는 모유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1.61±.61)가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1.85±.64),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성적 인 매력을 감소시킨다'(2.09±.75), '모유를 먹이는 것은 수유에 대한 책임을 혼자만 떠맡는 것이다'(2.21±.78), '모유를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2.42±.76), '모유를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2.42±.76)순이었다(표 7).

2) 대상자의 특성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성장기 수유형태가 모유수유인 경우와 혼합수유인 경우가 인공수유 군보다(F=3.101, p=.0027),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군이 정보를 받지 않은 군보다(t=3.75,

p=.001)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회활동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모유수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군보다는 '혼합 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한 군과 '일을 나가서도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한 군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F=34.683, p=.001). 그러나, 연령별, 계열별, 학년별, 종교별, 가족형태별, 흡연경험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표 6〉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N=462)

영역별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인지적 측면	6	3.33 ± .36
감정적 측면	7	2.78 ± .43
실천적 측면	7	3.51 ± .44
총 태도	20	3.04 ± .36

〈표 7〉 모유수유에 대한 문항별 태도

(N = 462)

항 목	평균±표준편차
1. 모유를 먹는 아기가 더 건강하다.	3.47±.58
2. 모유를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수유방법이다.	3.46±.56
3. 모유를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	2.42±.76
4.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한다.	3.84±.44
5.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성적인 매력을 감소시킨다	2.09±.75
6.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3.69±.51
7.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	2.84±.79
8. 모유를 먹이는 것은 수유에 대한 책임을 혼자만 떠맡는 것이다.	2.21±.78
9. 나는 모유를 먹이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3.22±.69
10.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할 것이다.	2.40±.77
11.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1.85±.64
12.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엄마젖을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	2.52±.67
13.모유를 먹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3.02±.66
14.모유를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2.42±.76
15.나는 아기에게 모유를 잘 먹일 것이다	3.16±.71
16.모유를 먹이면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	2.79±.70
17.아기는 모유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1.61±.61
18.모유를 먹이는 것이 분유보다도 아기에게 나쁠지도 모른다.	3.31±.65
19.내가 할 수 있다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3.42±.63
20.나는 아기를 또 낳아도 엄마 젖을 먹일 것이다.	3.26±.70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N = 462)

구 분	평균±표준편차	t / F	p	Tukey
연령	20세 미만	.420	.657	
	20-23세			
	24세 이상			
계열	인문계	.222	.824	
	자연계			
학년	1학년	1.416	.237	
	2학년			
	3학년			
	4학년			
종교	기독교	.330	.858	
	천주교			
	불교			
	무교			
	기타			
수유형태	모유수유	3.101	.027	
	인공수유			
	혼합수유			
	모른다			
가족형태	핵가족	2.250	.107	
	대가족			
	모른다			
흡연경험	경험이 없다	.487	.615	
	경험이 있다			
	현재 흡연중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N=462)

구분	평균±표준편차	t / F	p	Tukey	
금연의사	예	3.04±.37	3.073	.002	
	아니오	2.61±.41			
정보여부	받았음	3.08±.36	3.750	.001	
	받으적 없음	2.92±.35			
실천의지	1.모유를 안 먹이겠다.	2.54±.36	34.683	.001	a b
	2.일을 나갈 때는 분유, 집에서는 모유를 먹이겠다.	3.07±.32			a
	3.가능한 일을 나가서도 모유를먹이겠다.	3.27±.32			b c
	4.잘 모르겠다.	2.87±.38			c

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r = .306$ 으로 지식과 태도와의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 $p = .001$ )〈표 9〉

〈표 9〉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지식	Pearson Correlation	태도
		.306
	p value	.001

5. 모유수유 지식에 대한 영향 요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학년, 계열, 종교,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구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에

의해 17.3% 설명되었다( $F = 7.185, p = .000$ ). 그러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학년, 계열,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만 유의확률  $p < .05$ 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었다〈표 10〉.

6.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일반적 특성을 독립 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학년, 계열, 종교, 성장기 수유형태, 성장기 가족구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모유수유 의사에 의해 28.3% 설명되었다( $F = 12.551, p = .000$ ). 그러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대가족,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모유수유 의사만이 유의확률  $p < .05$ 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표 11〉.

〈표 10〉 모유수유 지식에 대한 영향 요인

(N=462)

변수	회귀계수	t값	p값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150	5.578	.000
학년	.491	2.898	.004
계열1 (자연계)	1.289	2.993	.003
종교1 (천주교)	.147	.263	.793
종교2 (불교)	-.175	-.254	.800
종교3 (무교)	-.407	-.845	.398
종교4 (기타)	-.914	-.367	.714
성장기 수유형태1 (인공수유)	-1.315	-2.256	.025
성장기 수유형태2 (혼합수유)	-.148	-.324	.746
성장기 수유형태3 (모른다)	-1.586	-1.428	.154
성장기 가족구조1 (대가족)	.137	.259	.796
성장기 가족구조2 (모른다)	-.535	-.276	.783
정보여부	1.1881	-3.726	.000

$R^2 = .173$

인문계=0      기독교=0      모유수유=0      핵가족=0



〈표 11〉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

(N=462)

변 수	회귀계수	t값	p값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320	.468	.000
학년	.136	.515	.607
계열1 (자연계)	-.352	-.523	.601
종교1 (천주교)	-1.116	-1.295	.196
종교2 (불교)	-.617	-.579	.563
종교3 (무교)	.341	.457	.648
종교4 (기타)	1.350	.352	.725
성장기 수유형태1 (인공수유)	-.806	-.893	.373
성장기 수유형태2 (혼합수유)	-1.033	-1.466	.143
성장기 수유형태3 (모른다)	-.586	-.340	.734
성장기 가족구조1 (대가족)	1.631	1.992	.047
성장기 가족구조2 (모른다)	1.310	.436	.663
정보여부	1.771	-2.244	.025
모유수유 의사	11.339	9.936	.000

R<sup>2</sup> = .283

인문계=0      기독교=0      모유수유=0      핵가족=0

#### IV. 고 찰

성장과 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영아기의 영양공급은 일생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된다.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연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해명할 수 없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록 우유 식품가공업이 발달되어 모유와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서구 문명의 영향과 조제 분유의 대량 시판으로 모유수유율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대한 간호협회, 1996),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95년부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대대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모유수유를 저해하고 조기 중단하는 요인으로는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 모델의 부재(김혜숙, 1995), 조제유의 과대선전(오현이 등, 1994; 이미자, 1995), 여성취업기회의 증가, 병원분만시 신생아를 산모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병원환경(Entwisle 등, 1982), 임신부들의 유방과 유두의 관리 방법(이지형 등, 1994), 모유량 부족과 관련된 유즙생성 촉진 방법(김혜숙, 1994; 오현이 등, 1994)에 대한 지식 부족과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부족, 의료인들의 모유수유 권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김혜숙, 1995)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아기의 변이 묽거나 설사일 때 습관적으로 인공수유를 처방하거나 생리적 황달과

모유로 인한 황달에 대한 정확한 규명없이 모유수유를 중단하도록 결정하는 의료인들의 태도는 임신부들이 모유수유를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임을 지적한 바 있다. (김혜숙, 1995)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과 잘못된 인식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79.7%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주로 대중매체(40.7%), 교사(35.4%), 가족(22.8%)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고, 의료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3.9%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보 제공자로 의료인(53.5%)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정보제공자로 대중매체나 교사보다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가 모유수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산모들의 모유수유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한 권숙희 등(1993)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의료인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나 모유수유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모유수유 교육은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모유수유 실행율을 높여 영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교육시기로는 고등학교 재학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김선애(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유수유에 대한 조기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장래 출산하게 된다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1.5%로 높았으며 사회 활동 시 모유수유 대처 방안으로는 '직장-인공수유, 집-모유수유'가 72.5%로 높게 나와 이는 김선애(1998년)의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 취업 증가에 대한 사회적지지 체계의 부족(36.5%)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변수자(1995년)의 연구에서 직업 여성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1개월 미만에 모유수유를 중단하였고, 98% 이상이 3개월 이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직업여성이라는 조건은 모유수유기간 및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출산 후가의 장기화 또는 육아 휴직 후 재취업에 대한 보장 등 제도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는 33점 만점에 평균 16.46±4.59(최대 29점 최소 1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Rentschler(1991)의 연구에서 모유수유 실천의 주된 저해요인을 동기부족(25%), 지식부족(24%), 피로(14%), 직업(14%)등이라고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산모들이 12주 미만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는 지식부족(김효진과 박영숙, 1993)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낮은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확대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모유수유에 대한 문항별 지식 정도 중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면역 성분이 있다.' '감기에 덜 걸린다.' 등 모유수유 장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항생제 복용중인 경우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 좋다.' '아기에게 물이나 분유 등 보충식을 주면 엄마의 젖분비 촉진을 방해한다.' '아기가 하루에 6-8개의 기저귀를 갈게 되면 모유를 충분히 먹고 있다는 증거이다.' 등 수유방법이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은 낮은 점수를 보여, 송규희(1989년), 정문숙 등(1993년), 이은주(1997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연구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잡지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송규희, 1989) 또한 모유의 장점에 대해 알고 있고, 모유를 계획했던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 Gulick(1982)는 수유 과정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모유수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되어 진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중 출산하게 된다면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한 군과, 사회활동 중에도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응답한 군의 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모유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모유수유를 선호하였으며(김선애, 1998년), 모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게 나타난(박옥희, 1992; 송애리, 1995; 최순옥, 1987; Freed et al., 1992; Gulick, 1982; Kistin et al., 1990)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평균 60.50±7.59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감정적 측면 점수가 낮게 나타나, 앞으로 감정적 측면의 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에 대한 잇점과 장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모유를 충분히 채고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젖을 짜거나 젖이 흐르는 것에 대해 당황할 때,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며 이는 모유수유를 포기하게 되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였다(Dix, 1991; Houston 과 Field, 1988; Morse 와 Bottorff, 1988). 반면 모유수유를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수유방법이며, 최상의 수유방법이라고 믿는 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오랫동안 모유수유를 한다고 하였다.(Baranowski 등, 1986; Virginia 와 Victoria, 1992)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의지와 신념을 나타내는 태도가 모유수유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모유수유 실천과는 관계가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방매륜, 1983; 변수자 등, 1994; 송지호 등, 1993).

본 연구 대상자중 모유수유로 자란 경우, 모유수유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산모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이러한 태도는 모유수유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변수자 등, 1994)는 연구결과와 Dusdicker 등(1985)의 초산모의 모유수유 시도 모형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가의 행동, 태도는 물론 모유수유를 격려하는 부모교실, 책자를 통한 격려 등의 모유수유 증진에 대한 지지와 정보를 제공받은 대상자가 모유수유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오현이 등(1994)은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불신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시켜 모유수유를 저해하므로 보건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모유수유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간호중재가 필요하며(이혜경, 1983), 개별적 산모 간호를 통한 설득과 시범교육으로 어머니들이 즉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유수유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 맺 음 말

본 연구는 장래 어머니가 될 여대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 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여대생(462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33문항의 지식측정도구와 정금희(1997)가 개발한 20문항의 모유수유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대상자에게 배포,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50.6%, 가

축구조는 핵가족이 81.7%이었으며, 장래 모유수유 희망자는 91.5%이었다. 대상자가 가장 신뢰하는 정보제공자는 의료인이었고, 모유수유에 대한 적절한 교육시기는 고등학교 재학중으로 응답하였다.

2.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33점 만점중 평균 16.40±4.59점이었으며, 「모유수유 장단점」에 관한 영역에서 가장 높았고, 「모유수유의 평가」와 「모유수유 방법 및 유의사항」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별 지식정도는 자연계열인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모유수유로 성장한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 받은 경우, 의료인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장래 모유수유 실천의지가 강한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3.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태도는 총평균 60.50±7.59점, 평균평점 3.04±.3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각 요인별 태도에서 「실천적 행동적 측면」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감정적 측면」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특성별 모유수유 태도는 모유수유로 성장한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장래 모유수유 실천의지가 강한 경우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

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

모유수유지식에 대한 영향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학년, 계열, 그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있었으며,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대가족,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모유수유 의사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은 지식과 태도를 높이고 이는 실천의지와도 상관관이 있으므로 의료진이나 모유수유 전문가에 의한 실천적인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조기에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가족계획 연구원 (1977). 1974년 한국 출산력 조사.
- 권숙희, 김영자, 김영혜 등 (1993). 모유수유 실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 김미중 (1996). 산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에 (1998).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과 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4). 모유량 부족 증후군의 잠재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1), 35-46.
- 김혜숙 (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및 지식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43-252.
-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박영숙 (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3), 377-396.
- 남은숙 (1995).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 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간호학회지 (1992). 22(1), 29-41.
- 대한간호협회(1996). 모유수유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 박옥희, 권인수 (1991). 산후 경과별 모유수유 실태. 모자간호학회지, 1(1), 45-58.
- 박옥희. 임신중 유방간호가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 방매륜 (1983). 출산에 관한 한국 전통문화가 모유수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변수자 (1995). 취업모의 모유수유실태와 지속방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37-151.
- 송규희 (1989).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 대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애리 (1995). 모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분석. 진주 간호보건의학 논문집, 18(1), 438-53.
- 송지호, 김순애, 문영수 등 (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3), 153-165.
- 신재순 (1996). 분만후 유방관리가 유방의 정상상태 유지와 유즙분비 및 자궁복구 상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1994).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위원회.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지침서.
- 이미자 (1995).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108-119.
- 이은숙, 서영숙 (1996). 모유수유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59-75.
- 이은숙 (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1997). 산전 모유수유 교육이 모유수유 실천 및 지식정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모유수유 관련 요인 및 어머니 교육 요구. 간호과학, 6, 76-85.
- 이혜경 (1983). 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 및 태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양자 (1993).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대의대 논문집, 30(2), 431-49.
- 정금희 (1997). 모유수유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숙, 김미애, 고효정 등 (1993). 간호사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지식과 간호활동 정도. 모자간호학회지, 3(2), 187-196.
- 조미영 (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 최순옥 (1987). 모유수유 교육이 그 실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이영희 (1996). 모유 수유부의

- 모유실천에 따른 요인분석. 대한간호, 35(5).
-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1982). 1982년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 한국 인구 보건 연구원 (1992). 1992년 전국 가족보건 실태조사.
- Baranowski, T., Bee, D.E., Rassin, D.K., et al. (1986). Social support, social influence, ethnicity and the breast feeding decision. Soc Sei Med, 17(21), 1599-611.
- Dix, D. (1991). Why women decide not to breast feed. Birth, 18(5), 222-25.
- Dusdicker, L.B., Booth, B.M., Seals, B.F., Ekwo, E.E. (1985). Investigation of a model for the initiation of breast feeding in primigravida women. Soc Sei Med, 20(7), 695-703.
- Entwisle, D.R., Doering, S.G., Reilly, Two. (1982). Socio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women's breast-feeding behavio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 52(2), 244-60.
- Freed, G.L., Jones, T.M., Schanler, R.J. (1992). Prenatal determination of demographic and attitudinal factors regarding feeding practice in an indigent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erinatology, 9, 420-24.
- Gulick, E.E. (1982). Informational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 feeding. MCN, 7, 370-75.
- Houston, M.J., Field, P.A. (1988). Practice and policies in the initiation of breast feeding. JOGNN, 17(6), 418-23.
- Huggins, K. (1990). The nursing mother's companion. Boston The Harvard Common Press.
- Kistin, N., Benton, D., Rao, S., Sullivan, M. (1990). Breast feeding rate among black urban low-income woman In : Effect of prenatal education : Pediatrics, 86(5), 741-46.
- La Leche League (1981). International. The Womanly Art of Brast feeding. In : Franklin park: La Leche League International.
- Morse, J.M., Bottorff, F.J. (1988). The emotional experience of breast expression. Journal of Nurse-Midwifery, 33(4), 165-70.
- Rentschler, D.D. (1991). Correlates of successful breast feeding.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3(3), 151-54.
- Toni, S. (1990). Bottle or breast, the first big decision. Nursing Times, 86(35), 63-5.
- Virginia, R., Victoria, C. (1992). The relationship of attitudes, knowledge and social support to breast feeding. Issues in Comp Ped Nursing Times, 86(35), 63-5.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1994). Gloval breast feeding prevalence and trends, 1-18.
- Abstract -
- Key concept : Breast Feeding, Knowledge, Attitude

##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im, Sung Hee\* · Choi, Euy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in order to develop of some educational programs for increasing breast feeding by studying the female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who will become a mother in future.

The respondents of this research were selected at random for 462 female students at the university in Seoul and Kyongki area, and it was the period collected the data from Oct 28, 2000 to Nov 8, 2000.

The method of study distributed the measuring tools of knowledge with 33 items and the tools of measurement with 20 items on the

\*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ttitude of breast feeding to the respondents directly, and collected them.

The data were analyzed to use SPSS program. Unpaired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difference between group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breast feeding was 50.6% in the period of lactation for the respondents and the nuclear families were 81.7% in family constituent unit. In the future the wisher of breast feeding was 91.5%, the medical personnel was a major informer who enjoyed their best confidence, Besides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proper period for education of the breast feeding was in a high school.

2. The level of Knowledge on breast feeding.

The respondents's knowledge on breast feeding was average  $16.40 \pm 4.59$  points on the basis of 33 points and On the merits and demerits ratio of breast feeding has shown highest but there was low in the field of such a concrete and practical plan as the estimate of breast feeding and the method and mindfulness for breast feeding.

The higher grader, the college of the natural science showed significantly the higher points in the knowledge degree by respondents's characters and in such cases the persons of breast feeding or the informed of breast feeding by a medical personnel or the women of strong will for breast feeding action in the future.

3. The Attitude on breast feeding.

There was relatively shown a positive attitude of the total average  $60.50 \pm 7.59$  points and the average evaluation  $3.04 \pm .36$  points in the attitude on breast feeding. The attitude by each factors has the highest points in the practical action aspect but the lowest in the emotional aspect.

The attitude on breast feeding by respondents's characters significantly showed a positive attitude in such cases the persons of breast feeding or the informed of breast feeding or the women of strong will for breast feeding action in the future.

4. Relation to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There was shown a correlation of definition in the relation to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5.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knowledge of breast feeding were attitudes on breast feeding, graders, the college of natural science and the informed of breast feeding. Also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attitude on breast feeding were on will and knowledge on breast feeding, a large family, the informed of breast feeding.

In conclusion, it will have to enforce a systematic education on the method of a practical breast feeding enlarged by a medical personnel and professional early enough as the information provision on breast feeding enables one to increase knowledge and attitude on it, besides it has relations with their practical will.